

◎ 國內經濟 小幅 安定成長에 國際收支 均衡

鄭 在 建

〈産業研究院 副研究委員·經博〉

작년 우리 경제는 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경기와 회복세에 있는 수출에 힘입어 8.4%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 성장률은 내수활황에 따른 불가상승 압박과 수출회복이 저조한데 비해 수입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경상수지적자가 -87억 달러로 대폭 확대되는 대가가 있었다. 이러한 내수활황으로 인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과소비억제 및 건축규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안정화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금년 3·4분기 현재 민간소비증가율은 5.1%로 낮아지고 건설투자증가율 및 통관기준 수입증가율은 각각 3.6%씩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고 물가도 안정세에 진입하게 되었다. 반면에 설비투자증가율도 금년 3·4분기 현재 3.2% 감소로 나타나 향후 성장잠재력 잠식에 대한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으며 3·4분기의 경제성장률도 1981년 이래 가장 낮은 3.1%로 크게 떨어져 기업에서는 경기부양책을 요구하는 등 경기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내년의 우리 경제가 금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하여 회복할 것인가가 관심이나 내년 우리 경제 전망은 금년 12월의 대통령선거 이후 들어서게 될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맞물려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서는 내년의 해외경제여건의 변화를 살펴보고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한 몇 가지 전제하에 경제성장, 소비, 투자, 물가, 수출입 등 부문별로 최근동향 및 내년의 우리 경제의 향방을 전망한 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 경제의 전망을 위해 내년 해외경제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세계경제가 그동안 선진국에서 경기부진을 초래했던 제반요인들이 점차 개선되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사회주의 경제권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에 힘입어 내년에는 2.8% 내외의 성장세를 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선진국의 경기회복 및 개도국들의 무역자유화폭 확대, 활발한 경제개발정책의 추진으로 내년의 세계교역량은 금년보다 더 높은 6.0% 내외의 신장세를 나타내 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전제한다. 한편 내년의 국제유가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및 개도국의 꾸준한 석유수요 신장세로 금년보다 약간 상승하여 서부텍사스중질유 가격기준으로 배럴당 21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전제한다. 그동안 세계경기 침체로 약세기조에 있던 국제원자재가격 또한 내년에는 세계경기회복과 더불어 다소 상승되어 금년에 비해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전제한다.

전망을 위한 우리 경제에 대한 전제로서는 정부가 내년도에 경제안정화정책을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총통화량공급은 금년에 비해 증가율을 2~3% 포인트 낮게 유지할 것이며 정부재정도 긴축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자금수요의 감소로 금리는 현재의 하향 안정세를 내년도에 지속하고 명목임금은 불가안정에 따른 실질임금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총액임금상승률 가이드라인설정 등 정부의 임금관리정책에 의해서 금년보다는 상승률이 4~5% 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환

율의 경우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금년의 국제수지가 아직도 높은 수준의 적자임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약세가 지속되어 평가절하될 것으로 보이나 해외 자본유입 등의 요인에 의해 최근의 추세와 같은 높은 수준의 평가절하는 어려워 그 폭이 작을 것으로 가정하고 원화의 대엔화 환율도 국제시장에서의 엔화강세 지속으로 약세를 보여 다소 평가절하 된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변화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살펴보면 우선 경제성장의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소비와 건설 및 설비투자 등의 증가율이 낮아져 경제성장률이 금년 상반기에 6.7%로 하락한데 이어 3·4분기에는 3.1%로 크게 둔화되어 금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은 5%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내년에는 앞에서 살펴본 해외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회복세 지속과 정부의 설비투자 촉진책에 힘입어 투자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보여 금년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0.5~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수요측면에서 보면 금년의 경우 소비증가세 진정 및 투자증가율 저하로 내수가 둔화되었으나 이에 따른 수입증가세 감소로 무역수지적자폭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수출회복세 지속 및 수입증가세 둔화로 국제수지의 개선이 이어질 것이며 투자증가율은 금년에 비해 다소 회복될 것이나 과소비 진정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금년 상반기중 제조업성장률은 지난해 상반기의 8.4%와 비슷한 수준인 8.2%이나 3·4분기에 들어서는 3.2%로 크게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생산도 전년동기대비 3.2% 증가로서 지난해 3·4분기의 6.4%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제조업가동률 또한 76.5%로서 지난해 79.6%에 비해 낮아졌다. 이러한 하락세는 내년에는 해외경기상승에 따른 수출회복세 지속과 투자수요회복에 의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우리 경제를 살펴보면 우선 소비는 금년들어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곧 소비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9.0%에서 금년 상반기에 7.9%로 하락한데 이어 3·4분기에는 5.9%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3%에 비해 크게 진정되었다. 이

러한 소비증가세둔화는 정부소비증가율은 예년과 비슷하나 민간소비증가율이 정부의 총수요관리정책에 따른 과소비억제로 크게 진정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내년에도 민간소비지출은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과 증시침체로 인한 자산소득의 감소 및 부동산가격 안정에 의한 불로소득 증가의 둔화의 영향에다가 정부의 총액임금관리로 임금소득상승률 또한 둔화될 것으로 보아 금년의 진정추세가 이어져 민간소비는 그 증가율이 내년에는 0.5% 내외 정도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년 3·4분기 내수용 소비재 출하가 -4.5%로 나타나 작년동기 10.2%에 비해 대폭 낮아졌고 도소매 판매액도 금년 3·4분기가 3.9%로서 작년동기 8.1%에 비해 낮아져서 이러한 민간소비증가의 둔화세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고정투자중 설비투자는 그 증가율이 지난해 2·4분기 14.7%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정부의 경기안정화조치에 따른 내수부진과 경기전망 불투명으로 금년 1·4분기부터 크게 둔화되어 3·4분기에는 3.2% 감소로 하락하였으며 4·4분기에도 둔화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에는 금년의 설비투자증가율이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선될 요인이 있는데다가 금리의 하향 안정세에 따른 금융비용부담의 완화, 물가안정에 따른 실질통화의 안정적인 공급, 세계 경제성장률 신장에 힘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증대, 금년 하반기에 정부가 마련한 설비투자진작조치의 효과, 대선 이후 정치적 안정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회복 등의 이유로 금년에 비해서는 회복되어 내년의 성장률 수준은 올 수준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년 3·4분기의 국내기계수주액과 기계류수입액이 각각 -13.1%,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초에는 회복이 미약하고 본격적인 설비투자의 회복은 내년 하반기에는 접어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설투자는 정부의 건설경기억제정책에 따라 지난해 4·4분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여 금년 상반기에 0.0%의 증가율을 보인데 이어 3·4분기에는 더욱 둔화되어 -3.6%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4·4분기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금년에는 최근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건설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에는 정부가 주택건설할당제 및 상업용건축규제조치 등 직접적인 규제를 해제할 것으로 보여 금년에 비해서는 다소 회복될 것이나 금년의 국내 건설수주액 및 건축허가면적이 금년 3·4분기의 경우 각각 -8.5%, -25.4% 감소로 나타난 것 등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내년에 미쳐 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상반기중 도매물가·소비자물가는 전년말 대비 각각 1.7%, 3.8% 상승했고 11월말 현재는 각각 1.7%, 4.7%의 상승률을 보여 금년은 지난해의 도매물가·소비자물가가 각각 3.1%, 9.3% 상승된 것에 비해서 크게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금년의 물가안정은 정부의 총수요관리 정책에 따른 내수경기진정으로 인한 초과수요압력 완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내년에도 정부가 현재의 경제안정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각종 공공요금인상 등 물가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안정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의 경우에는 금년보다 1% 내외 정도 더 낮아지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물가가 이렇게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정부가 경제안정정책의 지속을 위해 내년에 총통화공급증가율을 금년에 비해 다소 낮추어 운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물가인하요인이 있으며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내년에도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진정세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수요측면에서도 완화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난해 통관기준 수출이 10.6% 증가한 719억 달러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수활황에 따른 수입증가세로 인해 수입이 16.8% 증가한 816억 달러가 되어 9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금년들어서는 11월말 현재 수출은 8.6% 증가한 697억 달러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내수경기둔화에 따라 0.2% 늘어난 749억 달러를 나타내 통관기준 무역적자는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거의 절반수준인 52억 달러에 불과하다. 금년들어서 10월까지 수출을 세분하여 보면 우선 지역별로 선진권의 경우는 주요 교역국의 경기 침체로 인하여 증가율이 미국 -0.7%, 일본 -5.0%, EC 2.7% 등으로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홍콩 26.3%, 싱가포르 28.3%, 중국 149.7%, 중남미 76.9% 등으로 이들 지역들을 중심으로 호조

세가 지속되었으며 품목별로는 섬유 3.8%, 신발 -16.4%, 완구 및 인형 -30.2% 등으로 경공업제품이 작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고 전기·전자 8.5%, 선박 26.5%, 일반기계 3.5% 등 중화학제품들은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철강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은 각각 20.0%, 68.8%의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한편 금년들어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 위축과 국제원자재가격 및 국내물가의 상대적인 안정에 따라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고 있는 수입동향을 10월까지의 실적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선 품목별로는 원유의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강재, 경공업원료 및 화공품의 수입감소로 원자재수입이 -0.9%를 나타내고 있고 기계와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수입도 지난해의 20.4%에 비해 3.8%로서 그 증가율이 낮아졌으며 소비재수입도 지난해의 21.3%에 비해 증가율이 대폭 하락한 6.9%였다. 또 용도별로는 지난해와는 달리 내수용 수입증가율이 0.6%로서 수출용 수입증가율 3.9%보다 낮아져 내수중심의 수입구조가 수출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 수출입동향을 감안하여 내년 수출입을 전망해 보면 수출은 내년 세계경기회복에 따라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거나 후발개도국에 의한 시장잠식 가속화 및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 국제교역환경의 악화로 금년의 전망치인 8.2% 증가율보다 큰 폭의 증가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통관기준으로 9.2%가 증가한 8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은 정부가 내년에도 경제안정화정책을 지속한다면 내수경기의 진정이 이어져 둔화세를 유지할 것이나 설비투자촉진책에 따른 기계류 수입증대 및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 지속 등으로 금년의 전망치인 -0.2% 증가율보다는 높아져 통관기준으로 6.6% 증가한 868억 달러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의 통관기준 수출입차는 금년 전망치 -36억 달러의 약 절반수준인 -18억 달러로 개선될 것이 전망된다. 이러한 통관기준 수출입 전망을 국제수지기준으로 보면 내년에는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나 무역외수지가 내년도 여전히 금년과 같은 적자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는 내년도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도 현재의 안정기조를 그대로 유지

한다면 내수경기의 진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내년 우리 경제의 향방은 국제수지부분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수출이 얼마나 잘 되어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것인가 하는 전망이 중요하므로 여기서는 수출에 대한 전망을 지역별 및 품목별로 나누어 보다 상세히 살펴보자. 우선 지역별 수출전망을 보면 개도권이 금년의 28.5% 증가율에 이어 내년도에도 22.0%의 호조가 예상되고 북방권은 금년의 54.7%에 이어 내년에 30.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며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선진권의 경기회복이 예상되고 있어 금년의 2.1% 감소에서 내년에 5.4% 증가세로 돌아서 전체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권의 수출이 내년에 크게 개선되는 이유는 대미수출의 경우 우리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약화와 클린턴 신행정부의 수입규제정책의 강화로 큰 폭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워도 내년에 미국경제가 회복되어 3.0% 가량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 최근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금년대비 3.4%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대일수출은 일본경제의 내수가 회복되고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이며 갈류무역업허가로 일본상사를 통한 대일수출 증대요인 등이 있어 금년에 비해서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EC 수출은 EC 주요국의 경기회복과 우리나라의 수출다변화 전략에 의한 EC 시장공략의 효과 및 자동차·철강·항공기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대EC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에는 6.3%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내년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전기·전자는 9.8%, 일반기계는 18.0%, 자동차는 24.7%, 섬유는 5.8% 등으로 금년에 비해 개선될 전망이나 신발 및 선박은 각각 -23.5%, -10.0%로 금년에 비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발수출이 내년도에도 부진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중국 및 동남아국의 저임금 노동력에 비해 가격경쟁력 열위가 지속되기 때문이며 선박수출의 감소는 금년 들어서 급격히 둔화된 세계조선경기가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 선박수주량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또한 금년의 일부선박이 생산성향상에 따라 조기 건조되어 내년에 상대적

으로 건조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내년의 세계경기가 회복할 것이고 정부의 경제정책도 금년과 같은 안정기조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전망을 요약하면 경제성장은 금년수준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소비는 금년에 이어 과소비 진정추세가 이어지며 투자는 금년의 낮은 수준에 비해 다소 회복되고 물가는 금년에 이어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무역수지는 수출회복세 지속 및 수입증가세 둔화지속으로 적자폭이 금년에 비해 감소하여 국제수지기준으로는 무역적자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나 경상수지는 무역외수지의 계속된 적자추세로 흑자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내년에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면 내년의 세계경제회복에 따라 국제수지가 금년에 비해 개선될 전망이지만 소비 및 건설 등 내수경기진작으로 정책기조를 변화시켜 경기부양을 시도한다면 수입을 유발하게 되어 국제수지개선에 역행할 것이므로 내년도 안정기조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향후 국제수지흑자기조 정착 및 불가안정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우려되고 있는 향후 성장잠재력의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를 진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촉진책이 요구되며 또한 국제수지개선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제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펴는 등 부문별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대개도권 및 북방권 수출은 90년대 들어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대선진권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부진하며 내년도에도 미약한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선진권 지역에 대한 정부의 통상진흥노력 증대와 기업의 수출마케팅 노력을 강화하여 선진권 경제의 경기회복을 수출증대의 호기로 충분히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품목별로 볼 때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전자, 일반기계, 자동차, 섬유 등의 산업에서 수출증가에 따른 양적 공급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과 품질향상 및 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도 증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기업의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의 내용과 견해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서 산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